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1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역사의 그릇'인 오늘의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과 그 주인공을 찾아 격려함은 물론 일반인과 신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참가 대상 폭을 넓힘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사회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문화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조성룡 건축사(건축사사무소조성룡도시건축 대표)가 설계하고 삼능건설(주)가 시공한 의재미술관이 국내 준공건축물들을 대상으로한 2001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는 의재미술관 외에 본상 6점, 입선작 17점 등 준공건축물부문 응모작 24점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 응모작 33점 등 총57개 작품이 입상했다.

대상 수상작품인 의재미술관은 광주 동구 윤림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1,562.27㎡, 건축면적 816.92㎡ 규모의 전시문화공간으로서 조선말기 화가 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을 비롯한 국내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연속의 미술관 건축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자연지형의 지리적 형상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란 평을 받았다.

한편, 지난 19일 금호아트홀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작의 설계자인 조성룡건축사가 대통령상을, 시공자인 삼능건설(주)과 건축주(재)의재문화재단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은평구립도서관 등 본상 6개 작품의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상이, 본상 건축주와 입선작, 계획건축물부문 입상자들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서울경제신문사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5개단체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건축인은 물론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시상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개최목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 서울경제신문사

주 관

대한건축사협회

후 원

- 대한건설협회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보증(주)
- 한국주택협회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8. 15
- 접수 : 8. 16~8. 17
- 심사 : 8. 28~9. 5 (사진접심사 및 현장심사)
- 발표 : 10. 19 (서울경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0. 19 15:00 / 장소: 금호아트홀
- 수상작 전시 : 10. 19 ~ 10. 26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시상내용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비고
대상 (1점)	대통령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건축물부착용 동판	
본상 (6점)	건설교통부장관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해외건축탐방	국무총리상 트로피 건축물부착용 동판	
입선 (17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서울경제신문사장상	
공로상	트로피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 사이에 준공된 국내건축물
- 출품자 자격 : 응모건축물의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나. 주요 출품규정

- 출품자의 응모편의를 위해 건축물사진 (8"×10" 규격, 10매 내외), 건축개요, 작품설명, 건축사·시공자·건축주 소개서, 건축물대장 등이 수록된 사진첩 2부 제출
- 1차 사진접심사 통과작품에 한해 추후 패널 제출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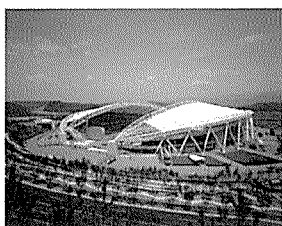
- 송기덕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 강석원 | 그룹가 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정태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이강업 |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

- 이용익 | (주)종합건축사(사) 동우건축 대표
- 한남수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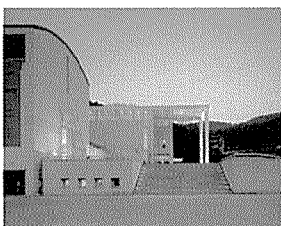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 **大賞** (설계자: 대통령상, 시공자·건축주: 국무총리상)
 - 의재미술관 / (주)건축사사무소조성룡 도시건축 조성룡 / 삼능건설(주) / (재)의재문화재단
- **本賞** (설계자·시공자: 건설교통부장관상, 건축주: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가나안교회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 예일종합건설(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나안교회
 -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민승렬 / 효산건설(주) / (재)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창수 / 삼성물산(주) 주택부문 / 삼성생명보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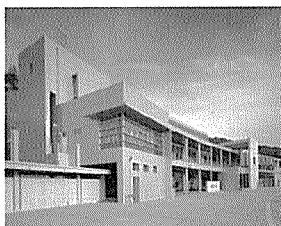
준공부문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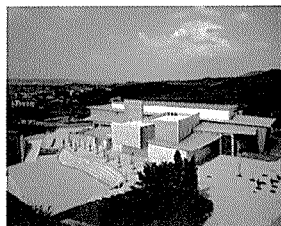
대구종합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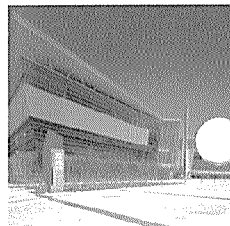
영은미술관



인상랜드 휴게소



월강기념관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대구 달성 명곡주공아파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갑 박용성 / (주)서한 / 대한주택공사
- 은평구립도서관 / (주)백건건축사사무소 박재환 / 동영종합건설(주) / 은평구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주)테제건축사사무소 조재원 / 삼환기업(주) /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 入 選 (설계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시공자·건축주: 서울경제신문사장상)
- 대구종합경기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강철희 / 삼성물산(주) / 대구광역시
- 영은미술관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 요진산업(주) / (재)대유문화재단
- 인삼랜드 휴게소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이충기 / 두산건설(주) / 한국도로공사
- 월강기념관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유 건 / (주)신리종합건설 / 학교법인 충청학원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이용흠 / 현대건설(주) / (주)BEXCO
- 캐피탈타워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정철 / 한신공영(주)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구 MBC / (주)일건씨앤씨건축사사무소 최관영 / 쌍용건설(주) / 대구문화방송(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 (주)원도시건축사사무소 변 용 / 쌍용건설

- (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 수원 월드컵 경기장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재)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임정렬 / (주)태영 / 의정부시
- 울산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 /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심성보 / 현대건설(주) / 울산광역시
- 서울대학교 SPORTS COMPLEX /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심성보 / 포스코개발(주) / 서울대학교
- 강변복지아파트 재건축 / (주)종합건축사사무소환경건축 박호종 / 동부건설(주) / 강변복지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 도봉문화정보센터 / 건축사사무소 시방유방근 / 성부종합건설(주) / 도봉구
-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 (주)건축사사무소한울건축 이성관 / 자유종합건설(주)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양구전투기념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 (주)영중종합건설 / 양구군
- 여주교정시설 /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환성 / 월드건설(주) / 월드건설(주)
- 功 勞 賞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한국주택협회

심사평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 건축문화의 창달과 인간중시적인 생활환경의 조화, 시대적인 건축문화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오늘의 우리시대의 건축물을 훌륭하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양식의 훌륭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시대의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는데 있다. 이 행사는 금년 2001년 이 10번째의 행사로 발돋움 하면서 꾸준히 발전되어지고 있다. 뜻하지 않았던 IMF이후 경제적 악영향으로 건축경기의 침체, 투자저하심의 심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질적저하 없이 금년에도 준공건축물의 작품성이 지속적으로 훌륭했던 점 기쁘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먼저, 심사위원단은 심사에 앞서 위원각자의 의견을 들어 작품의 심사기준을 정리했다.

- 건축문화의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고취된 작품.
- 이 시대의 건축물로 충분한 발전의 척도로 추정할 수 있는 작품.
- 인간중시 환경과의 근화구현 등 철학적인 이미지에 역점을 둔 작품.

위와같은 취지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 의 동의와 찬성으로 제출된 77작품(주거 19, 비주거 58 작품)에 대하여 과거 계열별 구분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키로 하면서 추후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하기



캐피탈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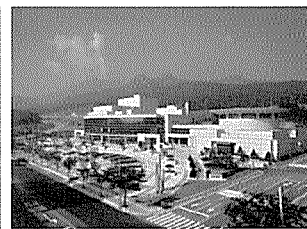
대구 MBC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로 했다.

먼저 1차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전체 제출된 77작품을 스크린한 후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주거 비주거 구분 제한없이 심사를 하고 과거 주거부분에 인센티브를 준 것에 대하여는 작품성 여하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외국작가와의 공동제작일 때 저작권에 대한 고려로 합작사의 명의를 반드시 밝힐 것.
- 간혹 훌륭한 작품이 뜻하지 않게 탈락할 때가 발생하는데, 탈락부활 심사를 고려한다.

대상 및 본상 심사

3차 심사에서 선정된 10개 작품의 건축물은 우연하게도 수도권 5개와 지방 5개 작품이었다.

3일간의 강행군으로 심사의원 전원이 피로함에도 상관하지 않고 현장답사 심사를 열심히 두루 살핀 점에 대하여 경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4차심사 : 현장답사 완료 후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끝에 대상과 본상 등 7개 작품을 선정하고,
- 5차심사 : 7개 작품 중 최종심사 작품으로 2작품을 대상후보로 선정기로 하고 두 작품 중에서 대상작품을 선정하기로 하였음.
- 6차심사 : 대상후보 2개 작품을 놓고 1

시간여 비평 및 토론을 거듭한 결과 의제미술관이 대상의 작품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작품의 총평과 소평

심사 후 금년도에 제출된 작품중 월드컵경기장 등 많은 대형 건축의 작품 등이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은 과정을 통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졌었다.

대형 작품마다 개성있는 면모와 각 도시가 주는 특별한 인상 도시와 건축의 연관성, 컨텍스트 등이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등이 관심을 끌었는데, 작품들이 주는 인상은 스텐드와 경기장을 덮는 지붕과 그 지지구조 등은 독창성과, 공간처리 등이 잘 정리되었으나 아쉬운 것은 St. DENIS의 월드컵 경기장의 몇몇 해외 축구 전용경기장들에서 보여주는 구조의 세련미가 돋보이지 못하였고, 역학적 해석과 시공성이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의 문제점은 다분히 우리의 현실과 항상 문제를 제기시키는 공기, 공사비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의 문제점은 충분한 시간과 좀더 정교한 시공성에 더욱 연구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의제미술관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의제미술관은 무등산 입구의 열악한 입지여건 속에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소박한 동양화 풍경과 잘 연계된 작품으로 작가로서 대단한 어려움을 건축이란 철학적 의지를 잘 조화시켜 기능과 동선과의 연계적 처리가 잘 표현된 점

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근대 학교건축의 비약적인 투자와 시설의 현대화로 시설내용의 많은 연구와 교육 각 분야에 특이하게 발전된 총본산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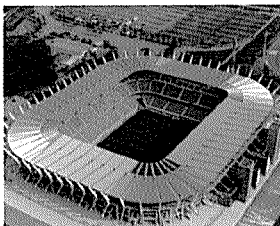
건축주와 설계자가 다년간을 두고 일체가 되어 예술대학이란 특수 분야에 대하여 소회하고 이해한 결과 훌륭한 예술대학의 캠퍼스를 성취했다는데 대해 모두가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 캠퍼스 중앙의 광장은 모든 행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구축에 노력했다는데 작품성이 돋보였다.

-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공동주택개발이래 개발사업체의 분양성과 수익성에 따른 일념된 -자형 배치 등으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공간의 다양성 건축의 미적감각 등이 결여된 계획으로 작품성이나 도시계획상 적절치 못한 건축으로 후세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명곡주공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두드러져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하게 계획되었다. 대지의 입지여건도 인접수립대와 연계되어 있고 남쪽계곡의 공원화 및 어린이공원 휴식공간으로 개발한 점과 단지중앙에 중심 광장을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공동아파트단지의 쾌적한 분위기를 이룬 점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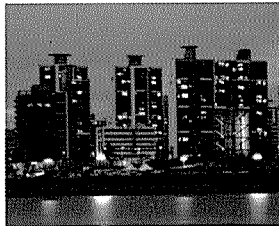
서민 아파트로서의 내부구성이나 외부입면 및 공간처리 또한 잘 처리되었다고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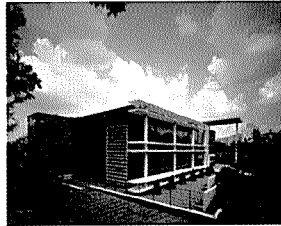
울산 월드컵 문수축구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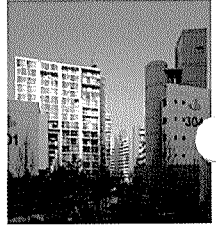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SPORTS COMPLEX



강북북지아파트 재건축



도봉문화정보센터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각된다.

- 은평구립도서관

도서관 대지의 경사도가 심한 입지여건에 후면 근린공원동산과 도서관의 옥상정원과 연계되게 하고 석교를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과 자연이 건축과의 융합을 자연스럽게 처리한 점 등 계획성이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지형지세에 순응하게 하여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옥상정원으로의 유도가 좋았다.

특이한 점은 교육적인 도서관을 초월하면서 시민의 정보와 만남의 장소로 구심점을 이루게 한 점과 다양한 이벤트의 장소로도 최적 환경을 이루었다.

- 가나안 교회

도심속의 교회건축의 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하는데 고심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교회건축의 과정적 공간처리 진입축과 일치된 강한 흡입력을 부여하면서 반외부공간으로의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주변환경을 잘 고려하면서 도시적이면서 인근과의 부정적 이질적인 아닌 형태를 구성했다. 내부공간 또한 부채꼴을 형성하면서 친밀감과 채광의 처리 등 종교적 분위기를 공감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 천주교인보성채전주성당

부지내 아름답고 고목들이 어우러진 부지의 환경을 적절히 지켜내며 수녀원의 고유한 특성을 잘 표현하면서 정적이고 순결한

수녀들의 이미지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특성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피로티를 통한 외부로의 전공간의 처리는 기존 환경의 유지를 위해 배려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종교 건축물의 성격상 다소 경직되기 쉬운 형태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내부공간과의 연결을 꺾어 소박한 수녀원의 표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용인 삼성생명 Noble County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향상 등으로 미래의 주거생활 방향의 지표를 제시한 실버타운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보잘 것 없는 양로원으로만 고집한 현사회의 비약적 발전의 생활터전으로 제시된 미래지향적 작품이다. 모든 부분이 고급화된 점은 좋았지만 고층 주거부문의 입지가 도심지의 고층 아파트와 같이 정서감이 결여된 느낌이 들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서생활과 안정감의 전원교향곡이 조용히 울려 나오는 듯한 감상의 공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동정근 / 인하대학교 교수

2001년도 새로운 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한국 건축문화 대상은 종합 문화로서 건축의 위상은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있다. 인간과 그 사회를 위한 정주환경의 창조라는 건축의 역할은 물질문화에 찌들어 가는 장소성 부재의 현대도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한국건축문화의 미래의 위상에 대한 문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심사는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사안별로 논의하여 정하였다. 이 상의 개최목적과 심사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심사기준은 건축문화대상의 개최목적에서 거론하고있는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심사기준의 기본으로 하였다.

첫째는 우리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둘째는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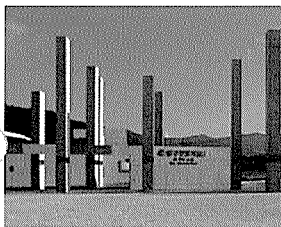
셋째는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 및 창작 의욕 고취.

건축문화대상의 목적은 우리문화 창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 건축 문화의 독자성 혹은 주체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 건축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설계자가 외국의 건축기든 국내건축기든 그 건축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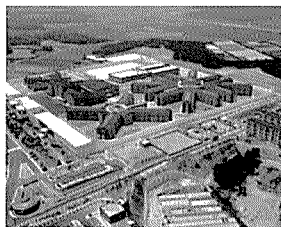
그리고 주변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인간중시보다는 건축을 위한 건축 즉 거품경제의 산물인 비합목적적인 건축에 대한 제고, 그리고 21세기라는 시대적 문제를 고려한 시사성과 미래지향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건축작품은 건축을 향한 모든 선행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력과 의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기술 및 지도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수행될

계획부분 | 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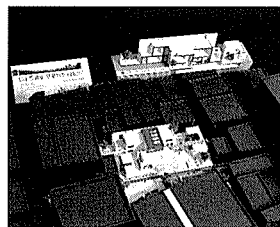
양구전투기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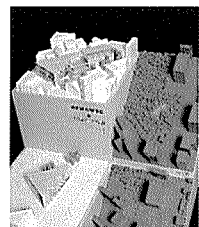
여주교정시설



청주 용두사지 절당간 광장 활성화 계획



Cultural Void of Urban



Remained & Forgotten

때 좋은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포괄적인 건축행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과 완성까지의 일관성이 심사 기준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발굴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는 저작권의 문제보다도 출판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로 심사과정중 깊게 논의되었다. 외국 건축가와 공동설계한 경우 그 사실을 밝혀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본상 대상작품을 선정하여 현장답사를 하면서 건축의 모든 분야가 이제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에서 공사비 내에서의 적절한 재료나 공법 선택의 미숙함 그리고 감리를 별도로 발주하여 건축가의 의지를 마지막 단계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몇 작품들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상공모로 수행된 많은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기 위해 계획된 거품디자인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품경제의 산물이기도한 건축에서의 거품은 합목적성을 벗어나 건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공공건축과 종교건축에서 지역 맥락과 소박하게 조화를 이루고있는 작품들에서 건축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의재미술관은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 주변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그리고 자연지형의 지리

적 형상을 수용하면서 내부공간으로 끌어 들어 순환하는 건축적 길의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동양화를 위한 내부공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지역 문화를 위하여 건축이 새로운 장을 열어 지역 건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21세기 그리고 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건축계에서도 미래와 세계를 향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깊은 의식의 환경문제, 도시건축문제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건축계의 의지를 새로운 세기에 기대해본다.

계획작품부문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6. 1~ 8. 15
- 접수 : 9. 10
- 심사 : 9. 13 (모형 및 패널 심사)
- 발표 : 10. 19 (서울경제신문 발표)
- 시상식 : 10. 19 15:00 / 장소: 금호아트홀
- 수상작 전시 : 10. 19 ~ 10. 26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전시실
- 작품집 발간 : 12월중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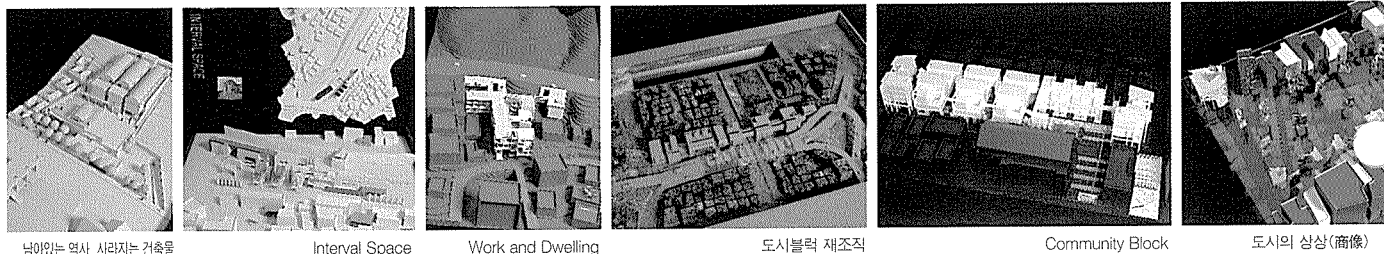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 작품주제 : 미세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

※주제설명

건축이념은 설계를 통한 실행에 선행하지만 역으로 실제 건축상황에 대한 이해는 건축이념개발의 근원이 된다.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건축이념들은 때로는 건축사고와 실행능력에 혼란과 함께 많은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추구해 온 한국적 정서와 사회구조, 자연조건 또한 우리의 삶을 담은 기존의 도시모습들에 대한 형태적 이해와 표현은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지상과제이다. 지난 동안의 다변화된 이야기들과 이념개발의 노력이 이제는 실행력을 갖춘 한국현대건축의 실천적 모습으로 발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건축의 현실적 과제로 도시구조 내부에서의 "미세 지역성의 해석과 표현"을 건축설계의 과제로 제시한다. 도시와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역사와 문화의 인문학적 연속성의 다양한 이론과 주장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성행했던 시대를 지나온 오늘의 건축 전문가들이 도시건축의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설계안의 형태제안을 통해서 도시성과 한국성의 실행적인 해답을 만들어가야 할 단계인 것이다. 그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도시건축물이 위치한 주변 상황에 대한 "미세 지역성"의 이해와 그에 적합한 설계안의 구상과 표현은 건축가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 지역의 비율과 도시 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건축이 인접한 도시 구조물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건축설계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형태적 반응은 필수적이지만, 주변의 "미세 지역성"에 대한 기존의 건축 이론가들의 관심과 해법개발은 거시적인 한국적 지역성에 대한 이념확장에 비해서 미흡한 것 같다. 작은 것부터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그 노력의 결과를 모아 큰 것을 이루어 가는 검허하고 실행적이며 또한 new-modernism적인 합리성이 이 시대의 도시건축에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미세 지역성"에 대한 이해는 도시에 위치할 건축물의 인근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대지의 역사성, 지형적인 여건, 인접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 도로와 도시공지, 광역적 지역성 등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곳에 적절한 건축형태를 발견 표현함으로써 주변과 어울림을 갖고 또한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인근 지역 주민과 사용자 및 공공을 위한 친근감을 주고 그들을 배려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의 추구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건축행위자의 능력이고 도덕률이다.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도시건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다.

개별적 표현성이 강한 튀는 건축 디자인의 시대는 표현주의적 이념들과 함께 지나고 있다. 온유하게 주변과 어울리고 공공

에 친근감을 제공하면서 성숙하고 고상한 모습의 자기발언을 시도하는 "미세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건축이 기대되는 시대이다. 인간이 재창조하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도시건축물은 인접지역과의 "예술적"인 어울림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인 가치를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작은 부분과 모퉁이들이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형태와 냄새, 분위기를 깊이 흡입하고 재표현하는 건축은 건축설계 행위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인 가치를 높여 줄 것이고, 이웃과 "어울림"의 아름다운 뜻과 모습을 통하여 공공예술로서의 도시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한국적인 도시건축을 완성하며, 그로 인하여 더욱 세계적인 가치를 갖춘 우리나라의 현대건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추천하는 설계의 진행방법은 독특한 "미세 지역성"을 갖춘 도시 안의 대지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춘 설계 주제를 개발하고, 그 주제를 타당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설계개념의 창안과 표현을 하도록 한다. 세부 주제의 적절성과 그를 위한 형태적 설계개념의 창의성과 타당성이 건축작품 평가의 중요한 대상이며 기준이다. 물론 다음 단계에는 건축적인 형태로 발전 전개해 가는 디자인 노력으로 연계되어 표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설계주제(theme)를 개발하고 설계개념(concept)을 창안하며, 주제와 설계개념

을 건축설계의 형태적 표현으로 전개 발전시키는(design) 능력의 배양이 건축행위의 근간을 이룬다고 정리한다. 그 과정에 이 시대의 건축이 요구하는 기능, 기술, 이념, 공간구성과 현대적 고려사항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모습의 작품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미세 지역성(micro-locality)의 해석과 표현, 친근하고 어울리는 도시건축, 주제:개념:설계 (theme:concept: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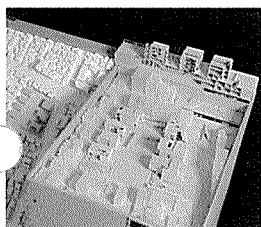
-출품자 자격 :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 (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패널(가로90cm×세로180cm 이내)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가로×세로 규격이 90cm×세로 75 또는 75cm×90cm, 높이 75cm 이내) 1점 제출
- 공동작품의 경우 출품인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함

심사위원

- 최광수 (주)범한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위원장
-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김기철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대표
- 김춘용 (주)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민형식 (주)반중합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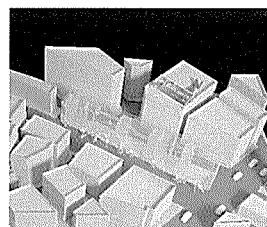
연, 속(連, 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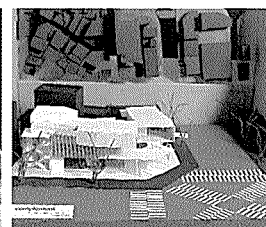
일미진중합시방(一味塵中舍十方)



Move



Art in Clarity



대각선 횡단보도로 인한 미세지역성

-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이정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시상내용

- 금상(1점)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 각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동상(3점) :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입선(27점) : 각 상금 20만원 및 상장
- ※동상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
중 영어 인터뷰시사를 거쳐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상자 명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順)

■ 金 賞

- 정·반·합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최기현, 이준수, 김동호

■ 銀 賞

- Interlocking Edge / 인하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강현진,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성신, 이상신
- 고도의 꿈 / 경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김용진

■ 銅 賞

- 대중예술센터 계획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조영삼
- 공원과 어울리는 커뮤니티센터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강경남, 석재영, 송지은
- 현대형 수변사찰 계획안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김성익, 김민보

■ 入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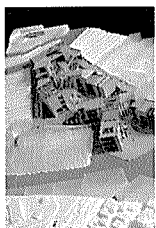
- 청주 옹두사지 철당간 광장 활성화 계획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진기, 남택

용, 유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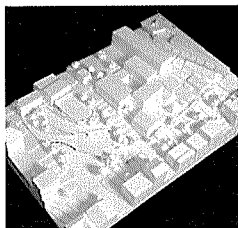
- Cultural Void of Urban /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과 신봉철 나하영, 동신대학교 건축과 정철호
- Remained & Forgotten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서명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 서규덕, 권철웅
-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이효상,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상규, 최재평
- Interval Space /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신인성, 이승진, 이효선
- Work and Dwelling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강경희, 임 은
- 도심블럭 재조직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강현석, 김대욱, 최대현
- Community Block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상국, 김용상
- 도시의 상상(商像)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권기홍, 김혜윤, 장경수
- 연, 속 (連, 續)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백기석, 손영하, 이민영
- 일미진중합시방(一味塵中舍十方) /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김민수
- Move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무균, 박양섭, 윤준혁
- Art in Clarity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김현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병남,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하지혜
- 대각선 횡단도로로 인한 미세지역성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안재우, 김건

주, 김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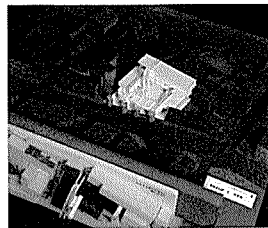
- Connecting / 부경대학교 건축공학부 이은수, 이수동, 임유진
- 화교문화센터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소용수, 최광일
- Inter Path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김찬기
- 지역역사성 보존을 통한 블록 재구성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안병익, 이호대, 김응래
- 호모랜드포머의 흔적 / S.Y.A건축사사무소 윤하영, 건축사사무소 OPUS 권오성, 동국대학교 건축과 안수환
- 봉천동 7-290 주거·상가 / (주)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지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단건축 황정순
- 회기역 발전계획안 /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한성훈, 윤설운
- 단절감 /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과 김영수, (주)시멘텍 백창흠, (주)건양종합건설 이재란
- Showcase in Myoung-dong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변영환, 이은정, 김호영
- The Third Street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지세욱,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창목
- D&C House /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 조작명
- 가회동 건축박물관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서현정,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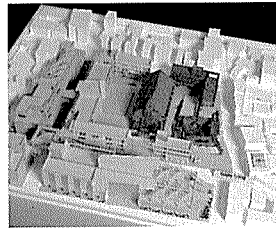
Connec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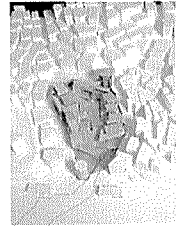
화교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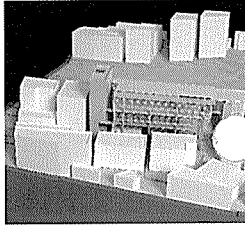
Inter Path



지역역사성 보존을 통한 블록 재구성



호모랜드포머의 흔적



봉천동 7-290 주거·상가

· 영도다리와 연계한 부산사기념관 / 동의
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계원, 김희일

심사평

이정만 / 한양대학교 교수

계획하는 도시 건축물이 위치할 대지와 인근지역의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성, 지형적 여건, 인접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 도로와 도시공지, 광역적 지역성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곳에 적절한 건축형태를 발견 표현하여 "주변과 어울림을 갖고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축의 구현"이 금년도 학생공모전의 주제인 "미세 지역성의 건축적 해석과 표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건축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건축계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 도시 건축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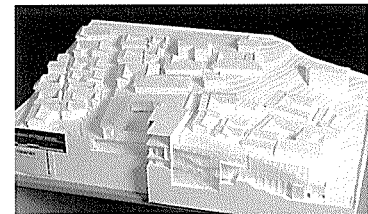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출품된 123개의 작품들은 나름대로 주제를 이해하고 주변 여건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건축적 반응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작품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주변 지역의 매스 모형을 정성껏 만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변의 매스 모형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용기 있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건축적인 형태의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과 건물들을

적절한 건축스케일로 해석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주변 건물의 입면과 배치, 매스와 공간구성을 건축 스케일로 그려보고 분석하는 훈련이 부족해 보이고, 앞으로 건축교육에서 계속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주변 지역을 배려하는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은 도시건축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설계목표이고, 형태적 환경맥락에 대한 해석능력의 배양은 설계 교육의 기본이라고 제안한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긍정적인 노력들이 보여져서 미세지역성에 대한 공감대는 느껴지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건축물들과 또한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신도시들에서 주변을 배려하는 "친근하고 어울리는" 건축의 가치를 재인식해서 우리나라의 21세기 도시와 건축의 중요한 덕목으로 대두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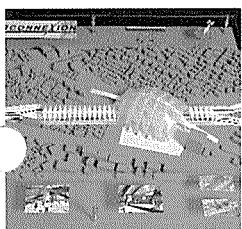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후에 선정된 33개의 입선 작품들에 격려와 치하를 보낸다. 33개 각각의 입선 작품들이 2단계에 걸친 진지한 평가와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선정되었음을 전달하고, 건축적 형태구성과 표현능력의 수월성과 함께 금년도 공모전 주제에 대한 이해와 재현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미세지역성"에 대한 남다른 해석능력과 재현의지를 갖춘 건축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금상으로 선정된 "정반합"은 보존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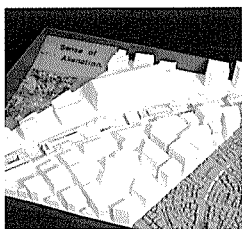
의 상대적인 가치 아래 건축의 해답을 기대하고 있는 가회동의 해묵은 건축과제를 보존지구의 경계에 위치한 대지를 선정하여 두방향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포용하며 공간과 형태 디자인을 통한 친근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은상의 두작품 중 "Interlocking Edge"에서는 개항도시 인천의 중국촌의 재구성을 위하여 건축과 광장, 인근 건물과의 건축입면의 연속성 등의 과제를 건축스케일에서 형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좋게 보았으며, "고도의 꿈"은 현대도시계획의 도로망에 의해서 분단된 우리의 고공을 연결키는 반복되는 과제를 많은 시간 동안의 노력과 창의적인 건축형태의 구성능력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in Urban Park," "Aqua Temple," "Via Musicom"의 세 개의 동상 작품들은 미세 지역성의 서로 다른 스케일들을 보여주는 예들로서 도시 공공공지의 단절현상의 개선과, 수변 지형의 활용, 또한 근린공간의 재구성의 스케일에서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디자인 구성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은 "Work and Dwelling," "Connecting," "회기역 발전계획안" 등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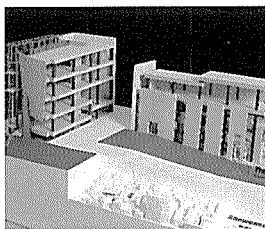
가회동 건축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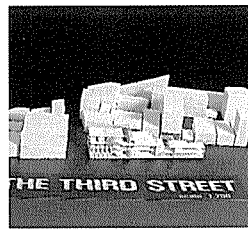
회기역 발전계획안



단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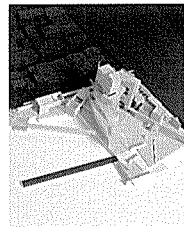
Showcase in Myoung-dong



The Third Street



D&C House



영도다리와 연계한 부산사기념관